

# 쏟아지는 '무착륙 비행상품'... 항공사 연말특수 누릴까

정부가 '무(無)착륙' 국제관광비행에도 1년간 임시적으로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면서 항공업계가 이에 대한 연말연시 특수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탑승객 대부분이 면세점 이용을 염두하고 있어 항공운임이 이번 상품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은 연말 무착륙 국제선 관광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하늘을 나는 호텔'로 불리는 A(에어버스)-380 기종을 앞세워 내달 초와 연말에 일본 상공을 운항할 예정이다. 운임은 일반석 기준 20~30만원이 될 전망이다.

최대 407명 탑승이 가능한 A380은 유증상자 대비 격리공간 배정 등으로 실제 탑승은 300여명이 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들이 이 기종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기장의 운항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장이 A380을 운항하려면 90일 동안 3차례 이상 이·착륙을 하고, 6개월 단위로 시뮬레이션

## 국내 6개 항공사 '무목적 관광상품'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A-380 띄운다 에어부산은 김해공항 출·도착 상품 준비 티웨이항공은 국내 일출·일몰 상품 출시

이터(모의 비행 장치)로 비상 상황의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도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말이나 내년 초로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을 염두하고 있다. 또 항공기는 A-321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인천이 아닌 김해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노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제주항공도 내달 초 일본 상공을 돌고 오는 국제선 운항을 계획 중이었으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되면서 운항계획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연말연시를 이용해 운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티웨이 항공은 국제선 운항보다 연말연시 항공기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셋'을 내놨다.

이번 상품은 성탄절인 오는 12월24일과 25일, 31일, 내년 1월1일 총 4차례 운영된다. '비포 셋' 항공편은 김포공항과 대구공항, 김해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모두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도착지 없는 비행이다. 가격은 1인당 13만9000원이며 이 경우 국내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점 이용은 불가하다. 다만 티웨이 항공도 이르면 연말께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도 12월 중에 무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A380'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한라산 백담담을 바라보고 있다.

착륙 국제선 관광 비행 운항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주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항공·면세점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제선 상품이 출시되면 이용객은 기본 600달러 이내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1명(10~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을 비롯해 시내(인터넷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상품운영을 허용하되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지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국내 공항을 출발해 목적지 없이 해외국가의 상공을 비행한 후 출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비행여행을 말한다.

정부의 상품 설계안을 보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 입국 후에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힌 승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여행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관광 상품에 탑승하는 대부분 승객들은 면세점 이용에도 관심이 큰 만큼, 항공운임을 싸게 책정되야 할 것으로 보여 수익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조명에 겨울 눈송이 활짝 피었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6층의 한 매장에서 겨울 눈송이와 꽃을 형상화한 수입 조명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 내년 외식 키워드는... '동네 맛집서 홀로 만찬'

### 농식품부, '2021년 외식 트렌드' 발표

내년 외식 키워드로 '홀로 만찬', '동네 상권의 재발견' 등이 선정됐다.

1인 가구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근 상권 맛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외식 경향'을 발표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외식문화·소비성향·영업전략 등 관련 단어 1423개를 수집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외식 키워드로는 '홀로 만찬'과 '동네 상권의 재발견' 외에 '진화하는 그린슈머(Greensumer)',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Food-tech)' 등이 선정됐다.

'홀로 만찬'은 확산된 혼밥 문화와 다양한 1인용 배달음식 출시 등으로 혼자서 원하는 장소에서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동네 상권의 재발견'은 최근 거주지 인근 배달음식점 등 이용이 늘면서 동네 상권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진화하는 그린슈머'는 환경보호와 동물복지 등 가치소비가 늘면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대체육 소비, 채식주의 등을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안심 푸드테크'는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비대면 예약·주문·결제 등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취향 소비'는 연령대별로 취향에 따른 체험소비와 구독서비스 이용, 복고풍의 재유행, 이색 식재료 조합, 음식과 패션 브랜드 간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외식 소비행태

가 어땠는지도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소비자가 선호한 음식(중복응답)은 방문 외식에선 한식(75.4%)이었고 배달 외식에서는 치킨(55.0%)이었다. 포장 외식으로는 패스트푸드(42.3%)가 가장 선호됐다.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방문·배달·포장 외식 모두 맛과 가격이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은 방문의 경우 청결도, 배달은 배달비용, 포장은 음식의 양이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앞으로 유행할 소비자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2021년 외식 경향 및 소비 정보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선옥기자

## 정부, 양곡 37만t 푼다... "수확기 이후 공급"

### 농식품부,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산양곡 총 37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 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t으로 전년(374만t)보다 23만t(6.4%), 평년(401만2000t)보다 50만5000t(12.6%) 감소한 수치다. 예상 생산량(363만t)보다는 12만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의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총 37만t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되 수요 변화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한다.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공급비축미로 매일 중인 산물벼를 수확기 직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해 부족한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급 상황을 봐가며 단

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확기 중이라도 수급 불안이 심화돼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부족물량은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되,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과 시기 등을 사전에 발표해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의사결정과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 '등록·신고증 無'... 정부, 다단계·방판 폐업 신고 간소화

### 공정위 방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앞으로는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폐업을 신고할 때 등록·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방문판매업 등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체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적는 것으로 제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방문판매업체 등은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해 이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개정안은 위법 다단계판매업체에 요청하는 '집해 정지'를 전자 문

서로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집해 정지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으로 방문판매업체 폐업 절차 관련 불편이 해소되고, 위법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의 구제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동취재본부

## 커피·외식업계, 2단계 격상 "두달 만에 문 열었는데"

### 8월 악몽 재현될까 '노심초사'...매출 40~50% 감소 예상



커피·외식업계가 또 시름에 빠졌다. 오늘(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있지만 연말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 시행한 2.5단계 때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 돼 매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매장 이용객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매출 40~50%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7일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 후 처음 맞는

2단계다. 개편 이전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이 시행,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던 소규모 카페까지 포함한다. "음식점은 되는데 카페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설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미 매장 이용객은 확연히 줄었다. 단골 고객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수수료가 비싸지만 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배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이디야커피는 요기요 등과 제휴를 통해 카페 배달시장을 선점했다.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배달 주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60% 신장했다. 같은 기간 주문 건수는 110만 건으로 61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후인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디야커피 배달 주문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1000% 증가했다. 배달 가능 매장은 2018년 400개에서 2년 만에 1800개로 늘었다.

업계 1위인 스타벅스도 스타트업 바로고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27일 여삼이마트점을 딜리버리 테스트 매장으로 오픈한다. 다음달 중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에 위치한 스타벅스대치점도 배달 테스트 매장으로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외식업계도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뷔페를 포함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실상 뷔페업계는 두달 간 매출이 제로였는데, 한달 여 만에 또 타격을 입게 됐다. 관계자들은 "뷔페는 연말이 성수기"라며 "매출이 오르고 있었는데, 2단계로 격상 돼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이슬기자